

구례에 항암식품 제조 공장·치유 병원 건립된다

도-구례군-아이쿱생협연합회 217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구례군에 항암 식품 생산 공장 and 치유 병원이 건립된다.

구례군은 전남도,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와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 및 치유병원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협약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아이쿱생협연합회 김정희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이쿱생협연합회는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 217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 and 치유 병원, 휴양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치유병원은 항암 농·식품 등을 이용해 1차 암 발생 예방과 암 수술 후 2차 암 발생 예방·케어 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협약으로 설립될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에서는 탄소치유농법으로 재배된



구례군이 전남도,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항암 농식품 제조 공장 and 치유병원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제공

항암 농산물을 가공해 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차의과대학교 박건영 교수팀의 동물실험 연구 결과 항암 농산물은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파이토케미컬 함량이 높아 대장암 등의 사멸 효과가 일반·유기농산물보다 최대 3배가 높았다.

구례군과 아이쿱생협연합회는 탄소치유농법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에 이르는 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5일 생산자단체와 항암 농식품

생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연드립 치유·힐링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항암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이용해 항암 식품을 제조하고, 또 이 식품을 이용해 치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신산업으로 발전시켜겠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2000년 설립돼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항암생활 실천’ 운동을 주도하며 치유·힐링 분야의 선두 주자로 성장했다. 2011년부터는 구례자연드림파크1·2단계에 투자해 친환경 식품 공장에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과 이웃돕기 물품 지원, 산부인과 개설·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박간재·구례=김상현 기자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카드·모바일 10%·지류형 5%

영암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카드·모바일은 10%, 지류형은 5%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관내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다.

영암사랑상품권은 관내 판매대행점 30개 금융기관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지류형 외에도 관내 금융기관과 ‘지역상품권 chak’ 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비플제로페이’ 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형(QR결제형) 등 3종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발행해 60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은 1600개 관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지류·카드형은 70만원(지류 50만원), 모바일형은 3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지류·카드형은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제로페이(가맹점)’ 앱 또는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영광군, 업체당 50만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처는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공통구비 서류는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월2-31일까지다.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50-5466)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작 선정 영암군, 세상건축사사무소작품



영암군은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에는 총 6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참가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작이 디테일한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공간 배치가 돋보인다고 평했다. 또 시각적·기능적인 효율성으로 평면 구성과 함께 입면 구성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상징성을 구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722㎡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영암=이병영 기자



무안군,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무안군이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무안군 제공

김경호 초대 남도장터대표이사 선임...15명 이사체제 운영

올 첫 정기회의서 4개 안건 의결

전남도는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27일 도청에서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운영 효율을 위한 수산·축산·유통 분야 전문가 이사 추가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해 △초대 대표이사 선임 △이사 추가 선임 △2023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 승인 △재단 내부규정 제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 김경호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초대 대표이사는 순천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정책학과)을 수료했다. 광양시 부시장,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역임했으며 오는 3월부터 2년 동안 (재)남도장터를 이끈다.

현장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수산과 축산 분야 전문가 및 유통 분야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문가 등 4명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해 15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7일 재단법인 남도장터 2023년 제1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경호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남도 제공

명 이사체제로 운영된다.

사업 계획과 예산 변경안 승인을 통해 전남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된 국내외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을 재단에서 대행한다. 출연금 20억원과 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인 쇼핑몰 운영 대행사업비 21억원을 추가,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올해 재단과 쇼핑몰을 운영한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남 농축수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책임

운영하는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남도장터 쇼핑몰은 2004년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로 매출액 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0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지난해 1월말 기준 1826개 업체 3만3155개 상품이 입점했으며 43만명의 온라인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3월1일부터 한 달간 기존 할인행사와 함께 쌀을 제외한 전품목 10% 추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박간재 기자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확대 결과 3명의 창업농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에서 창업까지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첫 성과로 3명의 창업농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을 지자체가 구축하고 영농경험이 없는 청년이 시설을 임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농업경영 능력을 보육하는 사업이다.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훈련을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소유 스마트팜을 지원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까지 35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박종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청년이면 누구나 스마트팜 영농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나만의 스마트팜 온실을 창업할 수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